

뒤 늦게 불붙은 일본 축구

J리그가 발족되기 전 일본 축구의 전체적인 환경은 빈약하여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낮은 수준에 들었으나, 1993년 화려하게 개막한 J리그를 시작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음

□ 프로축구 J리그 출범

-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서둘러 프로야구를 출범시켰던 것과 같이 일본 축구는 유럽과 남미 축구를 겨냥하며 성장했음
- 1990년대 중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일본축구는 사실 그 이전인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미 준비가 진행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1970년대 전차부대 독일 축구를 적극 모방하며 도입했고, 1980년대에는 남미축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어린 축구재목들이 브라질로 축구유학을 떠났음
- 유학에서 돌아온 선수들은 새롭게 출범한 일본 프로리그에서 프로의 기질을 가다듬으며 국민적 스타로 등장하게 됨
- * 그 대표 격이 미우라 가즈요시(三浦知良)선수로 일본 프로축구 원년부터 축구계의 스타로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일본 축구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공헌한 선수로 평가됨
- * 당시 최고의 몸값을 받으며 일본 프로축구를 이끌었던 미우라 가즈요시 선수는 인기 절정의 연예인과 결혼을 발표하며 대중적 스타에서 일본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떠오름

- * 그 동안 프로야구에서만 볼 수 있었던 국민적 스타선수가 처음으로 프로 축구에서도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음
- 1992년과 1993년을 기점으로 일본 축구에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는 1993년에 출범한 프로축구 J리그의 탄생임
 - 개막 당시 총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1999년에 1부 리그(J1, 총 16팀)와 2부 리그(J2, 총 12팀)로 나뉘어졌음
 - 매 시즌 최종성적을 기준으로 1부 리그 하위 2개 팀과 2부 리그 상위 2개 팀이 1부 리그 쟁탈과 고수를 놓고 한 판 승부를 펼침
 - 이 시합을 이레가에센(入れ替え戦)이라고 하는데 시즌 우승을 가리는 경기보다 더 뜨겁게 경기장을 달구는 경우가 많음
- * 야구에 비하면 일본에서 축구는 그 시작이 무척이나 느렸는데, 프로축구가 생기기 전 일본 축구는 세계무대에서는 물론 아시아에서조차 두려운 상대가 아니었음
- * 우리나라 축구가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연이어 출전하는 동안 일본은 아시아 예선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 멕시코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맞붙은 한일 축구에서는 한국이 2승 모두를 챙겼고 이탈리아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는 한국이 두 시합이나 남겨둔 상태에서 본선진출 티켓을 따낸 반면 일본은 1차 아시아 예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음

□ 최초의 외국인 감독 체제

- 1992년 일본은 축구를 활성화하고 선진국화시키기 위해서 최초로 명망 있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함
 -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한스 오프트 감독이 부임하였으며 뛰어난 지도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일본 축구를 국제 대회에서 몇 단계 격상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 4강으로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을 연상하게 하는 명감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

□ 울트라 닛폰 응원단

- 우리나라의 ‘붉은악마’가 있다면 일본에는 ‘울트라 닛폰’이라는 응원단이 있음
- 울트라 닛폰은 1992년 일본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며 기적에 가까운 일본의 축구 역사를 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지난 2002년 한일공동월드컵은 복잡한 한일간의 현안문제들을 잠시 뒤로 미루고 축구에 몰두하는 시간을 양국이 가졌음은 물론이고 양국 국민들이 보여준 세련된 응원모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었음
- 한국 대표 팀 응원단 ‘붉은 악마’는 ‘울트라 닛폰’보다 5년 늦은 1997년에 창단되었지만, 그 해 응원은 일본 국민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음
- 월드컵 공동 개최가 결정된 이듬해였던 1997년 9월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경기장에서 ‘Lets Go France Together’라는 플랜카드를 들어 보였음
- 일본에서 프랑스로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밀었고 이러한 붉은 악마의 응원모습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공동으로 개최하는 월드컵이 성공리에 끝날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음
- 이에 대한 화답은 5년 뒤 한국 축구가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했을 때 일본이 보여준 열화와 같은 응원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물론 세계를 놀라게 했었음